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07호 【루계 제25981호】 주체107(2018)년 4월 17일 (화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4월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동지, 문화상 박춘남동지,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문화예술부문 성원들, 창작가, 예술인들을 비롯한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성원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 외국인들이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극장에 도착하시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리군동지, 중국중앙발레무용단 단장 풍영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송도부장을 비롯한 중국손님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주시고 공고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안고 중국중앙발레무용단의 예술인들은 성의를 다하여 준비한 발레무용극을 무대에 올렸다.

세련된 예술적형상으로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피어린 혁명투쟁을 벌리며 성장하는 중국녀성들의 강의한 정신을 실감있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와 찬사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출연자들에게 우리 예술인들이 꽃바구니를 전하였으며 관람자들이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중국예술단의 주요배우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중국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송도부장을 비롯한 중국손님들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이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고 중국의 민족무용과 발레기교를 특색있게 결합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이 계기를 통하여 중국인민의 친선의 정을 우리 인민들에게 따뜻이 안겨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두 나라사이의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송도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와 조선인민에게 훌륭한 공연을 펼쳐보일수 있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성과는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조선인민의 지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습근평동지가 김정은동지와 이룩하신 공동의 합의를 대단히 중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두 당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의도를 받들어 문화예술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조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의 공연성과를 다시한번 축하하시면서 관록있는 예술단을 평양에 보내준 습근평동지에게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혁명적단결과 혈연적뉴대를 힘있게 과시하고 조중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게 다지는데 이바지한 중국예술단의 평양방문공연은 조중친선관계 발전사에 빛나는 한페지로 장식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연구보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도이췌란트베를린 아차위데디아프린트출판사에서 3월 28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경축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을 한생토록 신뢰하시였으며 인민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어버이, 영원한 주석으로 경모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알제리 알파자이르 타르잘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3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조선인민의 뜻깊은 명절인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마쟈르, 슬로베니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오스트리아, 메히코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에 대한 연구토론회와 독보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마쟈르로동당, 태양절경축 마쟈르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인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항일의 혁전만리를 헤치시여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진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조선로동당을 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 책임자와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각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영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선을 해방하신 절세의 애국자,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환정생 나라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세계정치원로이시라고 격찬하면서 앞으로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인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고전적로작의 주요내용을 독보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과 결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토론회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디아, 타이, 도이췰란드, 벨가리아, 프랑스, 에티오피아에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인민적시책들에 대해 언급하고 조선땅우에 인류의 리상사회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주석의 인민사랑의 헌신적 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은 그이를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모시면서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넘원대로 조선인민이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벨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소장 책임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기대한 공헌을 하신 그이께서는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정치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이신다고 찬양하였다.

벌가리아단체

불레찐 《태양절》 발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벨가리아 조선친선협회가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태양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홍단벌에서 연백벌까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겨진 그이의 불멸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볼 때면 사회주의대지에 어려있는 위대한 어버이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 투쟁과 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력사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헌신의 한평생이였다.

잊을수 없다. 이 나라 북단의 대홍단벌로부터 분계연선의 연백벌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대지의 그 어디에나 풍요한 농사작황을 안아오시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헌신의 자욱자욱을.

주체43(1954)년 7월의 좋은비내리던 날도 그 하많은 날들중 하루였다.

진창길을 헤치시며 찾아오신 때두대지에 몸소 삼을 박아보시고 이만하면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수 있다고, 우리는 벌써 항일혁명투쟁을 할 때에 조국을 해방하면 때두산일대의 넓은 등판에 농장을 크게 조직하고 감자농사를 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고, 5호종합농장을 없앤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장해야 겠다고 하시면서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봄빛완연한 4월의 대지에 뜨겁게 메아리치는듯싶다.

우리 수령님의 친리해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풍요한 대지로 전변된 곳이 어찌 대홍단벌뿐이랴.

전화의 나날 농업협동조합의 첫 씨앗이 뿌려진 청천군 원화협동농장,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길에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한 철령너머 깊은 산골에 자리잡고있는 희양군 로천협동농장,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태어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우리나라의 륙창지대인 연백벌, 지난날 땅이 척박하고 물이 말라 쓸모없는 땅으로 버림받던 미루벌 등 우리 수령님께서 찾고 찾으신 협동벌들과 포전들은 그 얼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주 하신 교시가 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알곡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이렇듯 농업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내리는 이른새벽에도, 눈오는 깊은 밤에도 쉬임없이 이랑마다, 최뚝마다에 불멸불류의 헌신의 자욱을 새기고 또 새기시였다.

그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농작물을 손수 가꾸신 경험도 들려주시면서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농업생산을 집약화하고 알두알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 알곡소출을 부단히 높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경리부문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찾으신 이 나라의 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의 협동농장들과 만나주신 농업근로자들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마지막 헌지지도단위가 농장이였다는 그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실을 놓고도 수령님께서 한평생 농업부문을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사회주의협동벌들을 찾고찾으시였던가. 그것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였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걱정도 많으시였고 해야 할 일도 많으시였다.

그중에서도 크나큰 념원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였고 그것은 언제나 그이의 심장을 불태운 열망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지지도의 자욱도 농업부문에 많이 남기시였다.

우리 인민은 이 나라 농촌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헌지지도의 자욱자욱, 오곡백과 푸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바쳐오신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를 뜨거운 눈물속에 깊이 새기고있다.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 누구나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된 불타는 충정과 신념의 명세가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력력한 사회주의협동벌 그 어디에서나 뜨겁게 맥박친다.

우리 수령님은 오늘도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농장벌에 계시며 사회주의대지의 풍년가을을 축복해주신다.

본사기자 림정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우의탑을 찾았다

【평양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16일 우의탑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중국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우의탑에 송도동지와 리진군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이어 그들은 우의탑을 둘러보았다.

송도동지는 감상록에 《중조친선은 영원하리라》라는 글을 남기였다.

조중친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한 친근한 린방의 예술사절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의 예술인들

혁명적단결과 혈연적뉴대를 과시한 축전무대

무대우도 관람석도 세차게 달아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의 출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력사적인 순간 극장은 말그대로 감격의 도가니로 끓어번졌다.

그이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이 잡아주신 손으로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출연자들은 격정으로 가슴을 들먹였다. 한순간만이라도 그이를 뵙고싶어 출연자들이 아닌 성원들까지도 저저마다 무대로 달려나왔다. 조중친선의 열기는 온 장내를 진감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이 혁명의 한길에서 항상 어깨겯고 함께 전진하여왔으며 조중친선은 하나의 계급적뉴대로 튼튼히 이어진 가장 공고한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전인 1972년 6월 평양대극장에서는 만사람의 관심속에 중국의 어느 한 무용극단의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과 동해의 공업도시 함흥, 항구문화도시 원산에서 각계층 인민들에게 《백모녀》와 함께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 그 제목은 《붉은 녀성중대》이다.

40여년만에 평양에 다시 온 발레무용작품.

여기에는 친근한 형제의 나라 인민들에게 중앙발레무용단의 대표작과도 같은 작품을 훌륭하게 형상하여 친선의 뉴대를 더 굳건히 하려는 중국예술인들의 최대의 성의가 비껴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가 특별히 선발하여 보낸 관록있는 예술단의 성원들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상봉이후 조선을 방문하는 첫 친선사절의 영예롭고도 중요한 임무를 무겁게 간직하고 품들여 공연준비를 해온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하신 때로부터 그처럼 짧은 기간에 두편의 발레무용극을 동시에 훌륭히 형상하기 위하여 온 집단이 힘든줄 모르고 열심히 훈련했다는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40여년전의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당시 2.8비날론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마련한 《붉은 녀성중대》 공연이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때였다. 중국예술인들이 공연을 시작하자 소나기가 억수로 내려 공연은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였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흔들림없이 마지막까지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꺾인듯 비는 멎고 두 나라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우렁찬 합창으로 공연이 끝났을 때 무대에 오른 단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중조친선이 얼마나 굳건한가를 시험해본것 같다. 사실은 이 친선단결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낸 불패의 친선단결이라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

그날에 무대에 나섰던 《붉은 녀성중대》의 배우들도, 관중의 세대도 바뀌였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네번이나 넘어 흘렀다. 그러나 세월의 풍파와 눈비속에서도 바래지 않은것이 있으니 그것은 력사의 온갖 풍랑속에서도 대를 이어 계승되여온 조중친선의 력사와 전통이다.

중앙발레무용단 교향악단 지휘자 류거에게는 남달리 소중한 추억이 자리잡고있다.

주체64(1975)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중국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다.

그날 공연에서는 특히 해금독주를 비롯한 독창, 기악독주들이 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여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였으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해금독주가가 바로 류거의 어머니이다.

잊지 못할 그날의 감동적인 화폭을 담은 기념사진에는 예술인으로서 그의 어머니가 평생을 두고 외우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고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전하고싶은 그의 인생의 자랑이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가보처럼 받아안은 그 사진을 품속깊이에서 꺼내들고 그는 진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나는 특별히 감격스럽다. 조선에서 우리 어머니는 김일성주석님의 접견을 받았으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바로 그러한 사연깊은 땅에 도착한 그날부터 나는 이르는 곳곳에서 실로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절실히 느꼈다.

이것이 바로 력사의 계승이 아니겠는가.

나의 어머니와 내가 걸어온 인생 그자체가 조중문화교류의 력사적뉴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척도라고 생각된다. …

어머니의 마음까지 함께 안고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그가 바로 이번에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무대우에서 직접 만나뵈왔다.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무대우에서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꿈과 같이 만나뵈왔으니 이것이 바로 조중친선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맥맥히 이어지고있다는 산 증거가 아니겠는가.

조중 두 나라에 있어서 산과 강보다 더 가까이, 더 긴밀하게 이어져있는것은 형제적정과 의리이다.

장구한 기간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지지협조해온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수 없는 하나임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돌이켜보면 반일항전의 그날부터 오늘까지 조중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은 사회주의를 전진시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힘이였다.

조선인민은 부상당한 중국인민지원군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의 흉탄을 자기 몸으로 막았던 박재근농민과 같은 심정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하였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의 어린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라성교렬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인민을 대하였다. 하기에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격전장의 한전호속에서 두 나라 용사들이 어깨겯고 웨친 승리의 함성은 침략자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률을 주었다.

두 나라 령도자들의 불변의 관계가 추동력이 되여 줄기차게 이어진 조중문화교류는 오늘 새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친근한 린방의 예술사절들의 평양행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친선의 무지개를 펼쳤다.

혁명적단결과 혈연적뉴대를 힘있게 과시하고 조중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게 다지는데 이바지한 중국예술단의 평양방문공연은 다시한번 철의 진리를 새겨주었다.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벼려지고 력사의 온갖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친선관계는 세대가 바뀌여도 변색없으리라는것을.

압록강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본사기자 조 향 선

절세위인께 심장으로 매혹되여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예술단의 성원들은 평양에서 매일과 같이 체험하는 새로운 감정들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중친선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중국예술인들의 얼굴표정은 누구라 할것없이 매우 밝고 즐거움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과 따뜻한 환대를 받고있는 중국예술단 성원들은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문화교류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신 이후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긍지스럽게 여기였으며 우리 인민의 진심으로 되는 성의에 대하여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특히 중국예술단을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특례적으로 맞이하도록 하여주시고 거듭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흠모하였으며 매혹의 감정을 심장으로 터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중국예술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를 접견하여주시고 몸소 중국예술단을 위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보아주시는 특전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중국예술단의 전체 성원들은 크나큰 격정과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중국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형제의 나라 조선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동지를 가까이에서 여러차례나 만나뵈오니 마음은 기쁨으로 끝없이 설레인다. 이전에 조국에서 느낀바 그대로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종 자신감에 넘치시고 인민들과 전혀 간격이 없으신 인자하고 자애로운분이시였다.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동지를 보시고 공연을 관람하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보니 그이께서 전체 조선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는 예술에 대하여서도 매우 진지하고 조예가 깊으신분이시다. …

중국예술단의 성원들중에는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 여러번 와본 예술인들이 많았다. 한 예술인은 조선의 예술과 문화를 무척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정깊은 어조로 불러보는것이였다. 중국예술단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시 보아주신 발레무용극 《백조의 호수》에 출연하였던 예술인들도 있었다. 남다른 영광을 지닌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과 함께 잊지 못할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표시하고싶어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중국예술단의 성원이 될것을 열렬히 희망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여러 중국예술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는 조중친선의 감정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시고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새로운 높이에서 이어가고계시는 뿌리깊은 형제의 정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조선과 중국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아주 가까운 린방이다. 거리도 가깝지만 감정도 가깝다. 중국사람들은 조선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있다. 조선에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가 있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하여 형제적이며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있다. 조중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의 고귀한 생애속에, 우리모두의 피속에 깊이 새겨져있다라고 중국예술인들은 말하였다.

중국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심장으로 매혹되었을뿐아니라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폐부로 느끼였다.

그리고 온 세계 진보적인류가 위인칭송의 송가를 한껏 터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긍지를 안고 조중문화교류에 이바지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리 수 정

중조문화교류의 초석이 되겠다

화창한 봄날 중조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문화교류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신 이후 첫 예술사절로서 평양에 온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다.

나는 조선에 대한 방문이 처음이다. 그러나 비행장에서부터 친근감을 따뜻이 느낄수 있었다. 우리 예술인들을 열렬히 환영하는것을 보면서 감사함을 금할수 없었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도의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평양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발레무용단은 대외문화교류의 사절로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께 발레무용극 《백조의 호수》를 보여드린것은 비길데 없는 최상의 영광이다.

중앙발레무용단이 조선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이것은 존경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의 배려에 따른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그후 친선적인 린방의 예술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최고의 성심을 안고 특례적으로 맞이할것이라고 한 귀국의 보도를 커다란 충격속에 접하였다.

이번에 우리는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공연을 다시 하고싶은 심정에서 그날에 《백조의 호수》에 출연하였던 성원들도 다 평양에 왔다.

그런데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에서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첫 공연을 진행한 우리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성대한 연회장으로 불러주시였다.

연회장에 나오신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저의 손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날 연회장에서 우리는 중국예술단을 환영하여 진행된 예술공연도 기쁜 마음으로 보았다. 조선의 이름난 예술인들이 중국노래를 부르는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특별히 품들여 준비한 그 노래들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다.

공연을 보면서 나는 두 나라의 예술교류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겨보게 되였다.

나는 중국사람이지만 조선예술과 일찌기 인연을 맺고있다. 중국의 길림성출신인 나는 어릴때 조선영화들인 《꽃파는 처녀》, 《사과딸 때》를 보았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조선무용을 나는 몹시 사랑한다. 이번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면서 받은 충격도 크다. 조선무용은 우아하면서도 수준이 높아 우리에게는 좀 어렵다. 그런데 학생소년궁전의 나어린 학생들이 춤을 대단히 잘 춘다.

귀국인민들이 아주 문화수준이 높다는것을 공연과정에 우리는 잘 알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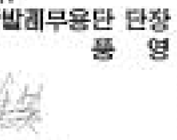
우리들의 발레무용을 주의깊게 보아주며 높은 기교를 발휘할 때 열정적으로 박수를 보내주어 배우들은 큰 고무를 받으며 공연을 진행하였다. 배우들과 관중사이에 호흡이 무척 잘 되였다.

그 호흡이 오늘저녁에는 최절정을 이루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들의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여 극장안은 그이에 대한 흠모의 열기로 끓어번지였다. 이런 광경은 그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다.

우리는 중조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중조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게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중국중앙발레무용단 단장 풍 영



평양에서 잊을수 없는 나날을 보내며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넘쳐흐르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는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이 펼치는 이채로운 공연들로 하여 더욱 뜻깊게 단장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과 중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친선적인 나라이며 혁명투쟁속에서 맺어진 계급적인 전우의 나라입니다.》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평양으로 달려온 중국예술단의 성원들은 잊을수 없는 나날을 보내며 느낀 자기들의 소감을 스스럼없이 터놓고있다.

명배우의 감복

중앙발레무용단의 수석배우 장검은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의 주역을 맡은 관록있는 배우이다.

1996년 베이징무용학원을 졸업하고 중앙발레무용단에서 배우생활을 시작하여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그는 중국과 외국의 수많은 무용극들과 발레작품들에 출연하여 주역을 수행하였다.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명배우인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을 하실 때 그이를 모시고 공연하는 행운을 지니였다.

그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 평양에 와서 또다시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동지를 만나뵈옵게 되니 정말 영광스럽다고 하면서 그는 흥분된 심정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려서면서부터 가는 곳마다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으니 깜짝 놀랐다, 감사의 마음이 북받쳐오른다, 이미전에 조선의 유명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데 조선민족의 아름다운 예술에 대하여 다시금 잘 알게 되였다, 오늘에 받은 감동을 동력으로 해서 조중친선에 이바지하는 더 좋은 작품들을 형상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근한 린방인 조선인민과의 친선의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중국예술단의 명배우가 터친 감사의 목소리는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화원에 생신한 향기를 더해주고있다.

진심어린 축복

중앙가극원 부원장 요홍은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에 온 중국예술단에는 우리 중앙가극원의 예술인들도 있다, 중앙가극원은 중앙발레무용단처럼 력사가 오랜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다, 중앙발레무용단의 이번 공연에서 성악은 중앙가극원의 예술인들이 맡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평양에서 받은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평양에는 초고층건물들이 많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밝다.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조선예술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 우리 나라에서 조선예술단들의 공연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여왔지만 이렇게까지 훌륭한줄 몰랐다.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성대한 연회에 참가하여 조선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았을 때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예술성이 대단히 높았다. 예술단체의 면모도 완벽하다.

계속해서 그는 10여년전에 조선의 학생소년들의 공연을 보면서 감동이 컸는데 이번에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고 행복의 무대에서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다고, 조선의 현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동지의 령도밑에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는 조선의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나의 무대

국가연극원 배우 장개려는 평양을 수십년만에 다시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발레무용극 《지젤》에서 소재를 맡았는데 처음 나서는 무대였지만 형제의 정이 흘러넘치는 친선적인 나라에서 4월의 축전무대가 전혀 생소하게 여겨지지 않고 나의 무대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다시 찾은 평양, 다시 체험하게 되는 조선인민에 대한 그의 감정은 확실히 류다른것이였다.

그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이번에 조선인민의 열렬하고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리고 거리들을 지나면서 조선의 변화를 많이 목격하였다. 공연이 끝나면 오래도록 박수를 쳐주고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열렬히 축하해주는 관중들의 모습에서 감동이 컸다. 특히 존경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쁜 시간을 내시여 공연을 보아주시니 우리들의 격정은 정말 컸다. 앞으로 조선과 중국사이에 문화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 피바다가극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가극 《홍루몽》공연이 중국에서 진행될 때 나도 표를 사가지고 세번이나 보았다. 조선의 영화와 노래들을 아주 좋아한다. …

그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국측은 이번 공연을 아주 중시한다고, 자기도 연기중이였지만 조선과의 특별한 관계가 자신을 중국예술단의 한 성원으로 되게 하였다고 하면서 조중문화교류를 위해 평양으로 온것은 응당한것이라고 하였다.

염 금 명

관심을 끄는 무동력양수기

평양기계종합대학 농업기계공학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는 종자문제, 영농기술문제, 새로운 농기계개발문제를 비롯하여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푸는데 연구사업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최근 몇해째 지속되는 가물현상으로 하여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비배관리에서 일정한 지장을 받고있다. 따라서 농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충분한 량의 물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특히 여러가지 양수기를 만가동하여 논이나 밭에 물을 보장하는것은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양수기를 리용하자면 전력을 비롯한 동력이 보장되여야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평양기계종합대학 농업기계공학부에서 만들어낸 파선식무동력양수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 양수기는 동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흐름속도가 비교적 느린 강하천이나 물길에서도 얼마든지 리용할수 있다.

구조가 간단한 이 양수기를 물이 흐르는 곳에 설치하면 수차가 돌아가게 된다.

결국 수차의 가동에 의하여 조성된 압력이 관안에 들어있는 물을 내밀게 된다. 이 양수기로는 수백m 되는 곳까지 하루에 수십㎥의 물을 보낼수 있고 최고 9m정도의 높이까지 물을 퍼올릴수 있다고 한다.

이 양수기는 여러모로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우선 실리적이다.

전기와 연유를 쓰는 양수기들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지속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경제적인 관수설비이다. 다른 양수기들은 제작공정이 복잡하고 운영에서 전기와 연유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조건이 많고 수리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하지만 이 양수기는 다른 양수기들에 비해 제작원가가 적게 들고 운영과 유지관리에 품이 적게 든다.

또한 이동하기에 편리할뿐만아니라 환경보호에도 유리하다. 연유를 쓰지 않으므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기때문이다.

이 얼마나 실용적가치가 있는 양수기인가.

이 양수기는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이곳 교원, 연구사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합쳐진 애국심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긴 장호영학부장과 김현기강좌장을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현실에서 절실히 필요되는 농기계를 만들어낼 높은 목표를 세웠다.

절약은 곧 애국이다.

긴장한 전력과 연유를 전혀 쓰지 않는 양수기를 만들수 없겠는가.

물론 한번 본적도 없는 조건에서 자체로 만든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닐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안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실패도 있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이들은 마침내 이 양수기의 핵심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밸브부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였다.

이 양수기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농업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실용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과학연구사업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리 충 일

치밀한 작전, 완강한 실천

증산군일군들의 사업에서

뜻깊은 올해의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으로 들끓는 증산군의 하천정리전투장들에서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종전보다 하천들의 통수능력이 훨씬 높아지고 제방의 안쪽에는 빨리 자라면서도 토지보호와 주민들의 땔감문제해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뽀뿌라나무들이 뿌리를 든든히 내리며 자라고있다.

이것만 보아도 하천정리사업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대하고 그와 관련한 모든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는 군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군에는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하천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군을 훌륭하게 꾸리고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에서의 성과도 이 하천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수 있다. 더우기 지난해 장마철에 쏟아져내린 폭우로 하여 적지 않은 논들이 물에 잠기고 그로부터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은 하천정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시사해주고있었다.

이로부터 군의 책임일군들은 하천정리를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빈틈없는 작전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것을 명심한 그들은 하천정리작전부터 과학적으로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하지만 군의 책임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공화국창건 일흔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 귀중한 나라의 토지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자면 하천정리를 비롯한 물관리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군일군들은 종전처럼 일부 구간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천들을 번듯하게 그것도 보름안팎의 기간에 정리할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헐치 않은 과제였다. 공사량을 따진다면 지난 시기에 비하여 3배가 넘었다.

그러나 군일군들은 가능성여부를 론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목표수행을 위한 빈틈없는 작전을 펼치였다.

여기서 중시한 문제가 있다.

지난 시기와 같이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통수능력을 부쩍 높일수 있도록 하는것이였다.

그러되 제방의 안쪽에는 계단식으로 턱을 만든 다음 거기에 빨리 자라는 뽀뿌라나무들을 심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물관리사업을 개선하면서도 토지보호와 주민들의 땔감문제도 해결할수 있어 일거다득이였다.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의 성과는 강한 전개력으로 담보된다.

공사를 앞두고 군책임일군들은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함께 모든 하천구간을 빠짐없이 밟으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리고 작업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단위별분담을 현실성있게 해나갔다. 또한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과 공구, 윤전기재준비도 예견성있게 해놓도록 하였다.

군일군들은 공사구간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는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작업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일군들은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계기는 주동적으로 성숙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공사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한 일군들은 단위시간동안에 최대의 실적을 낼수 있는 구간분리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끼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수록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찾아낸 승산이 확고한 전투방안이였다.

결심이 확고해진 일군들은 즉시 해당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에 따라 력량을 집중하여 비교적 짧은 하천들의 정리공사를 먼저 결속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또한 하천정리가 끝나는 차제로 나무심기를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벌어지게 되였다. 작업조건은 불리하였지만 일군들부터가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밀며 헌신하니 그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려나갔다.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안고 공사에 떨쳐나선 각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맡겨진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전과령역을 넓혀나갔다.

결국 전투시작부터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하천정리공사를 계획된 날자까지 끝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도 일군들의 능숙한 지휘와 완강한 실천력이 안받침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군책임일군들은 여러 지구에서 공사가 벌어지는 조건에 맞게 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하였다. 또한 실무능력이 높고 전개력이 강한 일군들을 각 지구들에 내보내여 그들이 대오를 이끄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안의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전투장의 분위기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기 위한 드센 사상전을 들이대도록 하였다.

일군들의 이런 빈틈없는 조직사업은 하천정리공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한층 북돋아주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한 귀중한 밑거름으로 되였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물속에서도 련속 실적을 높여나갔다. 특히 어려운 작업구간을 스스로 맡아나선 가두녀맹원들은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다른 단위들보다 앞서진 작업과제수행에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온 군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 하천들의 통수능력을 종전보다 1.5배정도 더 높이고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보호하여 올해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치밀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하천정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군일군들의 일본새는 혁신적이다.

본사기자 김 성 일

강성번영하는 이 땅우에 위인칭송의 꽃바다는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리

충정의 꽃에 비낀 철석의 신념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화축전을 더 성대하고 의의있게 잘 조직하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장식하여야 합니다.》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우리는 전시대들을 돌아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태양의 위업 과학으로 받들리

태양의 꽃,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황홀하게 펼친 국가과학원의 전시대에서 사람들은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의 첫 현지지도를 받은 과학자들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불멸의 꽃송이마다에 깃들어있다.

아름답고 진귀한 300여상의 김일성화로 활짝 피어난 한송이의 김일성화를 형상하고 그 모양이 잘 살아나도록 특색있게 장식한 국가과학원전시대로는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오고있다. 이 한송이의 김일성화와 그 중심에 구도를 잘 맞추어 생동하게 형상한 온갖 꽃 만발한 만경대고향집, 싱싱하게 자란 식물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움직이는듯 하게 부각한 《영생》이라는 글발은 영생축원의 꽃바구니가 되어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국가과학원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조형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불멸의 꽃축전들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전시대를 특색있게 펼쳐놓았던 국가과학원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열린 이번 축전에도 그 어느때보다 훌륭한 전시대를 펼치기 위하여 많은 품을 들이였다.

김일성화를 그 독특하고 매력적인 특성이 잘 살아날수 있게 과학적으로 키워내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한 류설경동무를 비롯한 재배공들,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는 형성도안을 창작하기 위해 피타는 사색과 남모르는 열정을 기울인 최창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과학자들.

만경대고향집을 여러차례나 직접 찾으면서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생동하게 형상하기 위해 애쓴 이들이였다.

하나하나의 장치와 설비들을 제작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설치하고 완성하기 위해 바친 헌신의 낮과 밤은 또 얼마였던가.

전시대의 《영생》이라는 글발에도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이번 축전을 준비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보다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받들어나갈 변함없는 철석의 의지를 담아 이 글자들의 형상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꺾음꽃이 아니라 화분에 재배한 싱싱하고 푸른 식물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생신하게 형상하기 위해 불리한 계절적조건을 이겨내며 한포기한포기를 정성을 다해 키웠다. 그리하여 이번 전시대를 더욱 의의깊게 장식할수 있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워하고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과학자들의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열정이 송이마다에 어리고어려 영광의 꽃, 충정의 꽃 김일성화는 그처럼 아름답고 황홀하게 피어나 우리의 태양절을 빛내이고있다.

백옥같은 마음을 안고

보건성에서는 해마다 수백상의 아름다운 김일성화들을 피워 불멸의 꽃축전장을 이채롭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번 축전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뜻깊은 기록을 배경으로 대형꽃바구니에 진분홍보라색의 아름다운 김일성화들을 전시해놓고 《영생축원》이라는 글발을 새긴 보건성전시대는 많은 참관자들의 눈길을 모으고있다.

훌륭하게 형상된 전시대를 저마다 사진기렌즈에 담는 참관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축전을 앞둔 어느날 보건성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찾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정문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해전에도 찾았던 곳이였지만 마치 처음 보는듯 한 온실의 새 모습이 눈앞에 안겨들었던것이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박광근실장은 올해 보건성 책임일군들의 발기에 따라 태양빛전지판들을 지붕우에 특색있게 설치하여놓았다고 하면서 최상의 조건과 환경에서 태양의 꽃들을 훌륭히 피워가도록 늘 마음쓰는 성일군들의 진정이 온실의 곳곳마다에 비껴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대형성도안을 놓고 성일군들이 열띤 토론들을 진행하고있는 김일성화재배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한 꽃대에 수십송이나 피여난 수백상의 아름다운 김일성화들이 꽃바다를 이룬 재배장에서 어룡철국장을 비롯한 성일군들은 꽃송이들과 잎새들이 더 잘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전시대에 놓을 화분들의 순서와 위치를 놓고 진지한 토의를 하고있었다.

실장은 성일군들의 그러한 모습은 축전에 참가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속에 저렇듯 누구나가 유능한 꽃전문가, 도안가, 설계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 나날 재배공들이 김일성화재배기술을 빨리 터득할수 있도록 수많은 도서들도 구해주고 또 함께 탐독하면서 온습도보장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애를 쓴 날과 날들은 얼마였던가. 아무리 이름난 원예사의 정성도 불타는 그리움을 안고 날과 달을 충정으로 수놓아가는 일군들의 백옥같은 그 마음에 어찌 비길수 있으랴.…

진정 우리의 김일성화축전은 만발하는 태양의 꽃속에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모셔갈 백옥같은 마음, 날로 더욱 뜨거워지는 충정의 마음이 세차게 굽이치는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꽃축전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본사기자 김옥별

-김일성고급당학교전시대에서-

-국가과학원전시대에서- 김광림 찍음

불타는 일념 송이마다에 어려

국토환경보호성전시대에서

경사로운 태양절을 더욱 환희롭게 장식하며 성대하게 진행되는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는 참관자들의 기쁨과 감격은 국토환경보호성전시대앞에서도 끝없이 용솟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화는 나라의 국보이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불멸의 꽃축전장으로 달려나온 성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의 1단계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성대하게 맞이한 불멸의 꽃축전이다.

푸른 숲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 돌이켜보면 이 땅우에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국토관리부문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조국강산에 꽃피워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애국념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보물산, 황금산으로 더욱 자랑높을 내 조국의 래일을 우리 전시대에 그대로 담자, 이것이 성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고 지향이였다.

전시대형성도안을 더 훌륭히 완성하기 위한 협의회도 수십차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이들이 자체로 그려본 형성도안도 그 얼마인지 다는 모른다.

자재보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온실종업원들과 전시대제작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이르기까지 축전준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돌려온 성의 책임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충정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오늘과 같은 전시대를 형상할수 있었다고 리경심국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고결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펼쳐진 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은 보다 아름답게 변모되는 조국산천의 모습을 안아보고 조국의 산들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묻어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쉬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참으로 내 조국의 푸른 숲들마다에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기어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보물산, 황금산의 력사는 영원하리라는것을 확신성있게 그려보게 하는 뜻깊은 전시대였다.

본사기자 김성민

꽃의 속삭임소리

상업성전시대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의 한마음이 훌륭히 반영된 상업성전시대가 완성되기까지에는 감동깊은 사연들이 많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화를 잘 키워 대대손손 길이 전하며 김일성화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만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시대에 전시된 불멸의 꽃들에는 재배공처녀인 한영경동무의 정성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아직 재배기술이 미숙했던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것은 성의 일군들이였다.

우리 힘과 지혜를 합쳐 태양의 꽃들을 활짝 피워가자고 절절하게 당부하는 일군들의 진정앞에서 한영경동무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깊은 밤에도 도서들에 파묻혀 어떻게 시간이 가고 날이 흐르는지 몰랐다.

하지만 뜻밖에 지속된 강추위로 하여 꽃재배사업은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았다. 꽃눈발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것이다. 그가 주저앉을세라 온실에 자주 찾아와 고무해주는 성일군들의 진정은 큰 힘이 되였다.

이번 축전준비를 하면서 애로되는 문제는 꽃의 생육조건에 맞는 적합한 온도를 보장하는것이였다. 온실의 난방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성의 책임일군들은 즉시 유능한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보이라보수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뿐만아니라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 긴급대책을 세울수 있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해결해주었다.

성의 일군들은 온실종업원들이 꽃재배에 전념할수 있도록 조건보장사업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긴장하게 전투를 벌리는 자기들을 위해 각종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찾아오군 하는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에 접할때마다 종업원들은 가슴이 찌릿해지군 하였다.

전시대형성도안을 창작할 때에도 성일군들은 《만민의 태양 우리 수령님》이라는 글발이 해솟아오르는 태양과 함께 만경대고향집, 주체사상탑이 생동하게 형상된 전시대도안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여기에 이런 실례가 있다.

처음에는 전시대의 주체사상탑의 봉화에 그저 불이 켜져있는것으로 되여있었다. 축전개막의 날이 다가올수록 전시대의 자그마한 세부를 놓고서도 더 깊이 마음쓰던 일군들은 봉화를 불길이 타오르는것처럼 형상할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에 필요한 장치가 짧은 기간에 제작도입되여 전시대의 형상을 특색있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되였다.

진정 성일군들과 종업원들, 온실재배공들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펼쳐놓은 태양의 꽃바다였다.

우리는 깊은 감동속에 전시대를 다시금 바라보았다.

꽃들은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우리 인민의 이렇듯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은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고.

본사기자

지향도 숨결도 하나

은하지도국전시대에서

《전시대의 꽃들이 정말 아름답지.》

《꽃색갈은 또 얼마나 진하니.》

…

은하지도국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이 연방 터치는 감탄의 목소리이다.

전시대를 쉬이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은하지도국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책임자인 김춘화동무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화는 우리 인민들에게 김일성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영광의 꽃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굳게 다지게 하는 충성의 꽃입니다.》

이곳 일군들은 지도국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화같은 충정이 불멸의 꽃송이들마다에 비끼게 하자면 풍부한 재배기술을 소유해야 한다며 많은 도서들을 품들여 마련해가지고와 온실종업원들이 기술학습을 꾸준히 진행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학습하는 기풍이 차넘치는 가운데 이들의 재배기술은 높은 수준으로 뛰여올랐다.

박영호, 김미옥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멸의 꽃을 키우는 사업에 사소한 빈틈이라도 있을세라 랭온풍기와 발동발전기를 비롯하여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성의껏 해결해주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온실의 저탄장에 발열량이 높은 석탄을 한밤중에 실어다준적도 있었다. 이렇게 온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기에 올해 강추위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꽃들이 자그마한 피해도 입지 않고 한상에 수십송이씩 활짝 피여났던것이다.

온실에 자주 찾아와 당파류며 온실관리에 필요한 물자들을 안겨주면서 재배공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도와준 일군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온실종업원들은 그 마음을 불멸의 꽃에 다 담고싶었다. 이들은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며 천하제일명화인 김일성화의 아름다움이 잘 살아날수 있게 빛조절과 영양관리, 온습도보장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끝끝내 불리한 일기조건속에서도 태양의 꽃바다를 아름답게 펼쳐놓았다.

불멸의 꽃들로 생동하게 형상한 만경봉과 활짝 핀 꽃으로 새긴 《태양복》이라는 글발, 김일성화를 떠받들고있는듯 한 갖가지 아름다운 보조화초들…

이렇듯 뜻깊게 형상된 전시대에도 은하지도국 일군들의 꾸준한 사색과 열정이 깃들어있었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 뿌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원예사, 재배공들의 열정이 무성한 가지를 뻗치도록 뿌리와 같이 아낌없이 고여온 일군들의 그 진정에 받들려 경사로운 태양절을 보다 의의깊게 장식하며 불멸의 꽃들은 이렇게 더 아름답게 피어날수 있었다.

참관자들이 전시대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것은 바로 그래서이리라.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여가려는 은하지도국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뜨겁게 어리여있기에.

본사기자 김명훈

4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열화같은 흠모의 노래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권위는 곧 해외교포조직의 권위이며 조국의 영예와 존엄은 곧 해외동포들의 영예와 존엄입니다.》

뜻깊은 4월의 봄날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세계 진보적인류가 터치는 위인칭송의 메아리가 평양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재일조선인예술단, 재중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은 태양칭송, 위인흠모의 열기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원수님따라 총련 앞으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누구보다 뜨겁게 안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로 달려온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이번 축전에는 조국인민들과 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진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배우인 홍명월, 인민배우들인 류전헌, 리영수, 공훈배우 김명희동포를 비롯하여 관록있는 배우들과 함께 신인배우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의 제목으로 시작된 이번 공연에서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는것은 많은 종목들이 동포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는 노래들로 구성되였다는것이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당의 령도따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하며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동포들의 모습을 전하고싶은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하기에 예술단성원들은 노래선정으로부터 예술적형상에 이르기까지 축전준비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였다.

이렇게 준비한 공연은 아낌없는 찬사와 열렬한 박수갈채로 련일 장내를 뒤흔들어놓았다.

노래와 무용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 혼성4중창 《조국과 민족위해 이 청춘 바치리》, 녀성독창 《조선의 꽃으로 너를 피우리》, 남성독창 《민족의 꿈》, 2인무 《피줄도 하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긍지, 총련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신념의 맹세가 뜨겁게 맥박치는 하나하나의 공연종목들을 우리는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홍명월동포가 부른 노래 《조국을 노래하네》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봄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에서 그가 독창으로 불렀던 노래였다.

그날 그의 예술적재능을 높이 평가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조국에 불러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이번 축전무대에서 홍명월동포는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절절히 그리며 삶의 지정곡과도 같은 이 노래를 다시 불렀다.

그것은 노래이기 전에 재일동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 그대로였다.

자기가 직접 작곡한 노래 《아 수령님》을 절절하게 부른 류전헌단장의 가슴속에도 사랑의 손목시계를 몸소 안겨주시며 친어버이의 정을 부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뜨겁게 간직되여있었다.

진정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힘들세라, 주저앉을세라 값높은 삶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준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떨치는 총련의 오늘이 있음을 우리는 작품들을 통하여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었다.

예술단의 이번 축전준비사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적여론이 높아가는데 당황한 일본반동들은 반총련,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광분하였다. 예술단의 이번 공연길을 가로막기 위한 거짓선전도 악랄하게 벌리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우심해질수록 자나깨나 조국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억세여졌다.

남성독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실화와 합창 《원수님따라 총련 앞으로》 등의 종목들은 어려워도 힘겨워도 사회주의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 재일동포들의 철석의 신념과 불굴의 기상이 그대로 맥박치는것으로 하여 공연의 절정을 이루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총련 앞으로!

진정 그것은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전체 재일동포들이 터치는 심장의 찬가였고 드팀없는 신념의 메아리였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적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된 조국의 모습, 인민의 밝은 웃음, 앞을 다투어 달려온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감동어린 시선들을 대할수록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선 무대에서 우리의 공연이 조국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태양만을 따르며 부르는 애국의 노래, 심장의 노래는 그 어떤 광풍도 막지 못한다.

한없이 소중한 어머니의 품

재중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혼성중창 《조국찬가》로 시작되였다.

무대에 울려퍼지는 노래의 구절구절에서는 한없이 소중한 어머니의 품, 조국을 자나깨나 그리며 사는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절절하게 어려왔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사랑의 감정이 《뿌리가 되자》, 《너를 보며 생각하네》, 《내가 지켜선 조국》, 《오늘의 창성》, 《바다 만풍가》를 비롯한 작품들마다에 넘쳐흐르는 이들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번 축전을 준비하면서 동포예술인들이 품은 한결같은 소망은 지난 시기보다 더 훌륭한 공연을 조국인민들앞에 펼쳐놓는것이였다고 한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가고있는 조국인민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한 푸록이라도 더 수준있게 준비하고싶은것이 이들의 심정이였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것은 김연주단장이 이번 축전준비를 위해 세운 목표였다고 한다.

한사람이 두몫, 세몫을 할수 있는 높은 예술적기량을 가진 동포예술인들을 찾기 위해 그는 드넓은 중국땅 곳곳을 다니였다.

축전참가열의에 넘쳐있는 수많은 동포들을 설복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실력있는 성악교수가 자기가 부르게 될 노래를 더 잘 형상하기 위해 조국의 음악전문가들에게서 학생이 된 심정으로 성악지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이 나날에 태여났다.

그러던 어느날 무용배우들을 선발하던 단장은 예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예술단성원으로 망라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량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너무도 미숙한 학생들을, 전문배우도 아닌 그들을 예술단에 부디 망라시킬 필요야 없지 않는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의 이런 속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학생들을 꼭 조국에 데리고갑시다. 앞으로 봄축전무대에 나설 주인공들이야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새 세대들에게 참된 조국애를 심어주어 그들이 위인칭송의 노래, 애국의 노래를 대를 이어가며 부르도록 하는것이 우리 세대의 응당한 의무가 아닌가고 절절히 말하는 단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이들이 출연하는 무용 《금수강산 좋을시구》, 《하나》를 보면서 우리 인민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애국의 숭고한 전통, 조국애로 불타는 재중동포들의 진정을 후덥게 느끼고있다.

축전의 첫날공연을 앞두고 우리와 만났던 단장은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노래 〈내 마음 언제나 그이 곁에〉는 우리 예술단성원들은 물론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있습니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느라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리 동포들을 일으켜 새 힘을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여 친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저도모르게 눈물이 나군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조국인민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조국에 처음으로 왔는데 상상했던것보다 더 현대적이고 멋있는 평양의 거리들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하나와 같이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그려보았다는 리홍란가수, 너무도 따뜻한 조국인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다고 절절하게 이야기하던 김순희가수…

축전무대에서 울리는 동포예술인들의 노래가 그처럼 절절하고 뜨거운것은 그들의 가슴속에 한결같이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함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끓어넘치고있기때문이다.

태양민족의 한성원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어머니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안겨주는 해외동포들의 노래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진군에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조향미
본사기자 김성룡

재일조선인예술단공연의 한 장면

재중조선인예술단공연의 한 장면

영광의 일터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

함흥모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함흥모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불타고있다.

몸소 공장의 리건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그대로 일터를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지난 3월 어느날 저녁, 현장을 돌아보던 작업반장 박인숙동무는 무슨 걸음을 멈추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내돋은 땀방울도 훔칠새없이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직포공들인 리현금, 허진경, 고복화동무들의 모습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교대를 마친 저 동무들이 어떻게…)

박인숙동무는 짐짓 노어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교대를 마쳤으면 퇴근해야지 이전 뭐예요?》

그러자 리현금동무는 말하였다.

《만장동지, 우린 오늘계획을 150%밖에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0%를 못하고서는 잠을 이룰것 같지 못합니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가 아닌가,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옷감을 안겨주시려 그처럼 먼길을 여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시였구나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앞서고 일손을 놀릴수가 없다며 매일이다싶이 다음교대에까지 뛰여들어두곤, 세몫씩 맡아 해제끼는 그들이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웠다.

이것을 어찌 그들의 마음이라고만 하랴.

오랜 기능공들로부터 나이린 직포공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린 열망을 소중히 간직하고 순회길을 달려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섬유염색직장에서도 타올랐다.

어느날 섬유염색직장에서는 전기보이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정황이 발생하였다.

보이라안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고장났던것이다.

기존공식대로 보이라가 식을때까지 기다리자면 퍼그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보이라가 식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수는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산계획은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

이런 자각을 백배한 유광철, 리명훈동무들은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채 식지 않은 보이라안으로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고열로 숨이 꽉꽉 막히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공화국창건 일혼돐을 향한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자기 단위가 마땅히 선봉에 서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그들은 일손을 다그쳐나갔다.

자기 한몸을 짱그리 다 바쳐서라도 보이라를 들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였다.

이윽고 그들은 보수작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모두가 정말 수고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때 그들은 흔연히 말했다.

공장의 동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있는것이라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위훈속에는 정소모기메자재발의 성공이라는 자랑찬 성과도 있다.

공장에서 정소모기메자를 자체로 만들 결심을 한것은 총장의 200일전투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던 2년전이였다.

정소모기메자는 길이가 각이한 양털섬유속에서 고급모직제품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긴 섬유만을 골라내는 설비인 정소모기에서 핵심기료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이 기료품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인민복무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가 아닌가, 기어이 우리의 힘으로 남의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리라.)

정소모기메자를 자체로 만들 각오를 안고 부기사장 안명화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집단성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처음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엄굴을 들지 못하고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공장의 일군은 말하였다.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열백번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는 시대에 살고있는 로동계급이라는것을 항상 잊지 맙시다.》

공장의 기술력량은 다시 일떠섰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소모기메자재발시업은 단순한 과학기술적문제이기 전에 우리 인민을 남부럼지 않게 잘 입히는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휴식이라고 하시며 어러차례 공장을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사업이였다.

그들은 수십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불러서지 않고 해당 무분 연구사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성공의 열쇠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지난 2월 그들의 앙양된 열의와 이악한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였다.

정소모기메자재발에서 성공한 소식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안겨준 기쁨이 엄마나 컸는지 모른다.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할 일념안고 열정을 바쳐가는 위훈의 창조자들은 이들뿐이 아니였다.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집단적정신열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직포준비직장과 여러기대말아보기운동을 벌리면서 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1직포직장의 종업원들속에서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길에 이 한몸 깡그리 다 바치리라!

이것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맹세이다.

이렇듯 행복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조국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변함없이 굳건히 지켜가고있는 로동계급이 있어 공장과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이 아니랴.

오늘도 함흥모방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 일혼돐을 향한 대진군에서 총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신 철

고향의 래일을 위해 바치는 열정

어랑군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기술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깊은 밤 어랑군과학기술위원회의 어느 한 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그들의 눈길은 방 한가운데 설치된 콤퓨터화면에만 쏠려있었다.

숨막힐듯 한 긴장과 침묵…

얼마후 콤퓨터화면에 그토록 기다리던 결과가 현시되자 사람들속에서는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군자체의 기술력량으로 독특한 무선통신방식에 의한 수자식종합측정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 돌파구가 열렸던것이다.

방안이 떠나갈듯이 터져오르는 박수갈채속에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이 군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전경렬동무와 부원리총일동무를 힘껏 그러안으며 말했다.

《성공을 축하하오. 이번에 정말 큰일을 말아 수행했소.》

《아닙니다. 당조직의 지지와 방조가 없었다면…》

고마움에 젖은 눈길로 일군을 바라보는 리총일동무의 뇌리에 새 기술개발전투의 나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지난 시기 어랑군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실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새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벌려 여러가지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치아름다운 무게초기슭에 무선조종에 의한 종합적인 양어관리체계가 확립된 현대적인 종어장을 건설한것도 그러한 성과중의 하나이다.

이 종어장의 알깨우기실은 로보트에 의해 감시조종되는데 로보트는 천정에 설치된 레루를 따라 순회하면서 매 양어못들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측정 및 조절할뿐아니라 양어못들에 먹이도 공급해준다.

군의 기술집단은 실패가 잇달으는 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언제나 자기들의 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당조직의 사랑과 믿음은 그들에게 지혜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하여 그들은 그토록 어렵게만 생각되던 종어장의 로보트화, 콤퓨터화를 자체의 힘으로 해냄으로 있었다.

지금 진행하고있는 수자식종합측정장치개발과정은 또 얼마나 험난한 초행길의 련속이였던가. 처음 이 연구과제를 맡아안았을 때 군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심중은 자못 무거웠다. 한것은 음성대화론이니파 각이한 대상물에 대한 원격측정까지 진행할수 있는 새 제품이 독특한 무선통신방식을 도입한 첨단제품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철석의 의지와 배짱이 그들모두의 심장속에서 불타올랐다.

리총일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제품설계를 위해 청진과 평양을 수십번이나 오가기도 했고 조종프로그람제작으로 머리밤을 표박 새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깊은 밤 연구사업을 위해 군 한달간이나 수도에서 려관생활을 하고있는 기술자들의 숙소로 뜻밖에도 군당책임일군이 들어섰다.

회의차로 평양에 올라온 기회에 기술자들의 생활이 걱정되여 밤길을 달려온 일군의 땀젖은 모습앞에서 그들의 눈굽이 어찌 젖어들지 않을수 있으랴.

자기의 힘과 기술로 첨단을 돌파하려는 불타는 지향과 당조직의 사심없는 방조속에 어랑군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드디어 새 제품개발의 돌파구를 열어놓고야말았다.

…

사무실을 나서는 어랑군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눈가에 온하루 흐르는 밤하늘이 비껴들었다. 과학과 기술로 흥하고 더욱 풍요할 고향땅의 아름다운 래일을 앞당겨가는 긍지로 그들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여

사리원강철공장 지배인 김종일동무

최근 사리원강철공장이 일 잘하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있다.

지난해에도 공장에서는 강철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고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에서 많은 전진을 안아왔다.

우리는 그 비결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에서 찾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몇해전 사리원강철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받은 김종일동무는 어째가 무거웠다.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는것이 급선무였다.

어려날등안이나 공장의 생산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았다. 오랜 기간 공장에서 일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 그리고 초급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의논도 해보았다.

그 과정에 그는 강철생산을 당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끌어올리자면 우선 설비부터 설정에 맞게 갱신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하지만 설비갱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공장에는 방대한 그 과제를 맡아할만 한 기술자들이 많지 못했다.

(당에서는 나를 믿고 한개 단위를 맡겨주었다. 물러설수 없다.)

하루밤을 꼬박 밝히며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지배인 김종일동무는 이튿날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생산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기대와 열망에 찬 모습들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힘을 믿고 만난 헤쳐가는 우리들은 말리마기수라는 노래를 노래로만 부른다면 우리가 언제 혁신하고 말리마를 타겠습니까. 온 공장이 떨쳐나 생산정상화의 물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날로 지배인을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가 무어지고 제일먼저 가열로를 개조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석탄소비량과 열손실량이 많고 로운영이 불합리한 가열로를 어떻게 현실조건에 맞게 개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기술혁신조 성원들은 람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지배인부터가 최신과학기술을 학습하는것은 물론 여러 금속공장들을 찾아가 앞선 경험을 배우기도 했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자기 공장실정에 맞는 로개조 연구를 심화시키기도 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기술혁신조 성원들만이 아닌 온 공장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켰다.

힘과 지혜를 바치고 지성을 다하는 로동계급의 진정은 가열로개조의 성공을 앞당기는 믿거름이 되였다.

집단의 이런 헌신적인 투쟁기풍으로 두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장에서는 경제적이면서도 운영에도 편리한 우리 식의 가열로를 제힘으로 개조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그들은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강철생산의 첫 공정인 유도로개조사업에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유도로개조사업이 벌어지고있던 어느날 지배인 김종일동무는 여러명의 종업원들이 살림집문제로 생활에서 고충을 겪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늘 밝은 모습으로 일터에 나와 가열로와 유도로개조사업에 열중한 종업원들의 가정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을 너무치며 짐일로만 공장일을 먼저 생각하며 애쓰는 진실한 로동계급의 생활문제부터 풀어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여 그는 유도로개조에 앞서 종업원들의 살림집건설부터 진행할것을 작정했다.

서로 돌고 이끄는 미풍속에 누구나가 생산이 끝나면 집으로가 아니라 살림집건설장에 달려가 제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진정을 다하였다.

이렇게 일떠선 살림집들에 입사하게 된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맡은 일을 더 잘해서 혁신자가 될 결의를 다지였다.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지고 한 식솔처럼 정을 나누니 공장일이 잘되였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에서는 련속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유도로가 새로 일떠섰고 주강환봉생산주임구를 개조하여 제품의 단일화, 규격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온 공장이 혁신으로 들끓던 이 나날에 어려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도 창안도입되였다.

지금 이 공장을 찾는 사람들은 공장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놓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이 공장이야말로 지방진설에 필요한 철강제품들을 자체로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앞장서는 단위라고 한결같이 정가하고있다.

그럴 때마다 지배인 김종일동무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이 물음에 언제나 떳떳하자고 온 공장이 떨쳐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힘으로 흥하는 집단, 일군들이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는 사리원강철공장이 거두고있는 성과의 비결이였다.

오늘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기간 도안의 여러 대상건설들에 필요한 철강재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해온 그 기세로 강철생산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갈 열의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천 일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 새로 발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더 많이 발굴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유적발굴대원들이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에서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가치있는 력사유적유물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가야 합니다.》

새로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은 장수원동 소재지로부터 동북쪽으로 2km정도 떨어져있는 산의 동록정사면에 자리잡고있다.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의 하나인 이 무덤은 한칸으로 된 만지하식 돌칸흙무덤이다.

무덤은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으로 놓여있으며 그 평면형태는 동서너비가 남북길이보다 큰 장방형을 이루고있다.

발굴당시 무덤칸의 천정부분은 천정막음돌의 일부가 파괴되여 이미 드러나있었다.

그러나 무덤칸안은 천정과 네 벽의 웃부분이 비교적 잘 보존되여있는 상태였다.

무덤칸의 안길은 남쪽으로 나있는데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있다.

석회암으로 된 돌들을 가공하여 쌓아올린 안길의 벽은 현재 아래부분만 남아있다.

무덤칸의 바닥은 5~7cm의 크기로 잘게 잰 자갈들을 10cm정도의 두께로 깔고 다진 다음 그우에 3cm정도의 회미장을 하여 완성한것이다.

발굴당시 무덤칸의 바닥은 많이 파괴되여있었으며 시족부분에 회미장을 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무덤칸벽 역시 석회암으로 된 돌들을 가공하여 쌓아올리고 회미장을 하여 완성한것인데 벽화는 바로 그 벽겉면에 그려져있다.

무덤칸의 천정은 정행고임 2단, 삼각고임 3단의 순서로 가공한 돌들을 쌓은 후 그우에 천정막음돌을 덮어 만든 정형삼각고임식천정이다.

무덤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2.7m, 동서너비 3.2m이며 벽의 높이는 1.4m, 무덤칸바닥으로부터 천정막음돌까지의 높이는 2.6m이다.

발굴당시 무덤칸의 네 벽에서는 모두 벽화흔적이 드러났으며 바닥에서는 천정의 벽화조각들이 나타났다.

무덤칸의 네 벽과 천정에서 떨어진 벽화조각들에 그려진 내용들을 종합하여보면 무덤칸의 벽화는 검은색과 붉은밤색, 누른색의 색감을 리용하여 그린 사신도라는것을 알수 있다.

무덤칸의 북쪽벽에는 검은색과 붉은밤색을 리용하여 현무를 그리였는데 현재 거무기의 몸체 부분과 꼬리부분, 뱀의 대가리 부분을 확인할수 있다.

무덤칸의 남쪽벽에는 붉은밤색과 누른색을 리용하여 주작을 그리였는데 전체의 형상은 잘 나타나있지 않지만 날개와 다리 부분이 남아있다.

벽들에 남아있는 사신도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환상적인 동물로서의 특징들이 형상되여있으며 살아움직이는듯 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있다. 특히 활달하고 기백있는 필치와 선명하고 부드러운 색채표현들은 고구려인민들의 강의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함께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은 무덤의 구조형식과 무덤칸에 그려진 벽화의 주제내용으로 보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삼석구역에서 이미 발굴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호남리사신무덤과 대비하여보면 잘 알수 있다.

호남리사신무덤과 장수원동벽화무덤의 공통점은 구조형식에서 무덤칸의 정면형태와 천정축조방식이 같고 벽화의 주제내용도 같은것이다.

차이점은 무덤칸방향이 장수원동벽화무덤은 서남향이고 호남리사신무덤은 남향인것이다.

그리고 장수원동벽화무덤의 벽화는 무덤칸둘벽에 회미장을 한 후 그린것이지만 호남리사신무덤의 벽화는 무덤칸둘벽에 직접 그린것이라는것이다.

삼석구역에서는 호남리사신무덤을 비롯한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들이 이미 적지 않게 알려져있었다.

이번에 장수원동벽화무덤이 새로 발굴됨으로써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들이 종전보다 삼석구역의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다는것이 증명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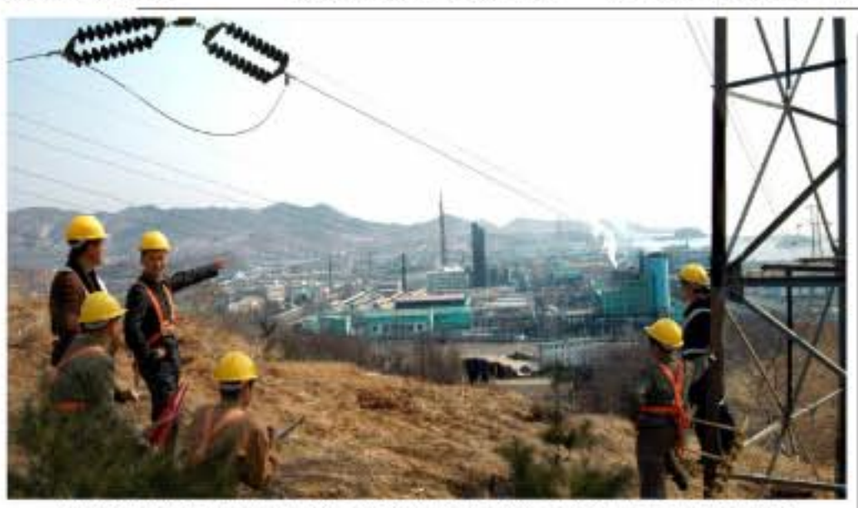
장수원동벽화무덤이 새로 발굴됨으로써 고구려의 사신도의 출현과 변천관계도 밝힐수 있게 되였다.

벽면에 그려진 벽화의 색채와 치우친 안길을 가진 구조형식 등은 장수원동벽화무덤이 5세기 중엽의 무덤으로 보아지는 아주 이른 시기의 무덤이라는것을 뒷받침하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동방의 천년강국이였던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를 새롭게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장수원동벽화무덤이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이다.

이번에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이 또다시 발굴된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존엄높은 조선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백 성 근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전력을 허실없이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함경남도송배전무에서- 본사기자 최 충 성 찍음

그 날의 맹세를 지켜

증산군 백송원료동원사업소 로동자 김련철동무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군사복무시절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어느 한 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김련철동무이다.

그는 언제나 그날의 영광을 심장에 새겨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할 결의를 다지였다.

김련철동무는 그날에 다졌던 맹세를 순간도 잊지 않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충정과 헌신의 한길에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왔다.

그는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사회주의협동법, 탄광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누구보다 앞장섰다.

그 나날에 막아서는 난관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그날의 맹세를 지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는 또한 사업소앞에 어려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혁신자의 영예를 떨쳐왔다.

그런 그를 두고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부름에 심장을 내댈줄 아는 진짜배기인간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오늘도 김련철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심장의 맹세를 다지면 그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조금이라도 더 이바지할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조 정 호

◎ 방문기 ◎

새 기술개발창조의 숨결 드높다

‖ 평양정향건재공장을 찾아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의고안을 하고 새 기술을 발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평양정향건재공장에서 로력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질좋은 건구와 건재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척척 생산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단위를 찾았다.

우리가 공장을 찾아오게 된 사연을 들은 정룡수부원은 마침 경소마그네사판을 생산하고있는데 생산현장부터 가보자고 하면서 이 건구의 우월성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경소마그네사판은 경소마그네사를 기본원료로 하고 여기에 톱밥이나 연재와 같은 각종 공업부산물들을 혼합하여 만들기때문에 자원의 제리용적측면에서도 좋고 우리 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원료를 리용하니 더욱 좋다는것이였다. 특히 강도가 대단히 세고 내수성이 좋으며 불이 잘 붙지 않는 특성도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경소마그네사는 건축부문에서 리용가치가 대단히 높은 록색건축재료였다.

흥미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산현장에 들어섰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것은 차곡차곡 쌓여있는 경소마그네사판들과 함께 기운차게 돌아가고있는 자동화된 생산공정이였다.

호름선을 타고 생산되여나오는 경소마그네사판들과 제품들을 자동적체하여 다음공정으로 넘기는 지게차를 호뭇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는 이 제품은 건설장들에서 많이 리용되는 휘틀판을 대용할수 있을뿐아니라 여러가지 건구나 카구도 만들수 있기때문에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절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경소마그네사판의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조국의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공장 종업원들의 참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졌다. 그는 질좋은 경소마그네사판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높은 의욕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공장에서 생산한 보온재들은 바닥을 딱 채우다싶이 쌓여있었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이 공장의 전변을 현실로 보여주는 광경이였다.

우리는 질감생산현장을 돌아보면서 공장의 전변을 더 잘 느낄수 있었다.

한쪽에서는 교속분산기, 혼합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이 혁신의 동음을 울리고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밥브들에서 나오는 각종 내장재, 외장재들이 용기마다 포장되고있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질감들은 집이 좋은것으로 하여 전국적으로도 소문났습니다. 여러 질감들은 지난해에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종업원의 말이였다. 그의 말을 증명하여주듯 첫째도 질, 둘째도 질이라고 쓴 글발이 우리의 눈앞에 화적은 붉은 광의 물을 리용하여 콩크리트의 질을 높일수 있는 콩크리트감수제며 성능이 좋은 방수제, 메움제들…

이 제품들이 다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것들이라는 사실도 우리를 놀라게 하였지만 자체로 개발한 50여가지의 제품들가운데서 10여가지의 제품들이 2월2일제품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30여명의 종업원을 가진 작은 공장에서 그렇듯 많은 제품들이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였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러한 성과의 비결을 우리는 이 공장에 꾸려놓은 현대적인 공업시험실을 돌아보면서 잘 알수 있었다. 시험실에는 각종 콩크리트측정설비들과 질감생산에 필요한 분석 및 측정설비들, 경소마그네사판의 구부림세기와 부착세기를 측정하는 설비들을 비롯하여 각종 건재 및 건구생산에 필요한 전문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었다.

이렇듯 훌륭한 연구조건이 보장된 곳에서 어찌 질좋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생각을 알아맞힌듯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정룡수부원은 말하였다.

《이 실험설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질좋은 새 제품들을 개발할수 있었으며 우리 공장제품들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은 새 기술개발창조의 길을 끊임없이 줄달음쳐온 자강력의 강자들에게서만이 나올수 있는것이였다.

공장에서 생산된 많은 건구 및 건재품들이 2월2일제품으로, 국가과학기술성과로 등록되였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기술성과들이 발명과 특히로 여러건이나 등록되였는데 이 과정에 정룡수동무는 박사의 학위까지 수여받았다고 한다.

돌아볼수록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할수 있게 하는 공장이였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새 기술개발창조의 열풍속에 이룩한 더 많은 성과를 안고 뜻깊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박 현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태양의 따사로운 미소어리여 봄빛도 화창한 4월이다.

해마다 태양절을 맞이할 때면 우리 겨레는 민족의 어버이의 한없이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더더욱 숭엄한 그리움에 휩싸인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정녕 나라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시고 그 길에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북남관계가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조국통일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애국애족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그이께 다함없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였고 절절한 념원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 가슴아파하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우리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그 실현을 위해 장장 수십성상 길이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실 애국의 일념을 안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정력적으로 이어가신 헌신의 길,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였던가.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경험을 마련하시였으며 통일위업실현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속에서도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외세와 그와 결탁한 친미매국노들의 《단선단정》책동으로 하여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대회합을 마련하시고 온 민족을 거족적인 애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적대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자주의 사상과 백승의 지략,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력사의 모진 시련과 광풍을 맞받아 풍파를 헤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내외원수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거족적범위에로 끊임없이 확대발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겨레의 지향과 통일운동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제시하신 자주통일방침들은 우리 민족이 통일위업실현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으로 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치신 로고는 또 얼마나 큰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여야 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세계 많은 나라의 각급 대표단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 인민의 자주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국제적분위기를 적극 고조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심혈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오로지 나라의 통일과 겨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고귀한 친필을 남기시였다.

《김 일 성
1994. 7. 7.》

길지 않은 이 아홉글자속에 세기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해 만난시련을 헤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크나큰 로고가 비껴있고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한생이 응축되여있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오늘도 절절한 그리움, 뜨거운 눈물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마지막친필글발을 우러르고 또 우러른다.

력사는 애국자, 위인들의 생애를 무수히 전하고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인간적인 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아온 절세의 애국자를 알지 못한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온 겨레가 후손만대 길이 받들어 모셔야 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통일위업실현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위업을 승승장구의 한길로 힘차게 떠밀어주는 강위력한 추동력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끈질긴 방해책동속에서도 승리적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온 겨레를 애국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정력적인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고있으며 부강번영할 우리 민족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주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
3대륙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13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3대륙인민단결기구 총서기와 성원들,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참가자들은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주체의 태양이신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으며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며 보다 큰 승리를 떨쳐가신다.

주체의 태양이신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주체사상연구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 결성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 결성식이 6일에 진행되였다.

네팔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연단위원장으로 디펜드라 로까야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보루로 건설하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세계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이의 불멸의 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주체사상연구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을 결성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결성식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보수정객들의 추악한 주도권쟁탈전

최근 남조선의 보수야당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패거리들이 선거련대문제와 관련한 싸움판을 벌려놓고 소란스럽게 놀아대고있어 각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껏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것들은 서로마다 보수의 주도권장악을 꾀하며 개와 고양이처럼 싸워왔다. 그런데 얼마전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인 류승민이 앞으로 진행되게 되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자유한국당》파의 선거련대를 실현할수도 있다는 뜻밖의 소리를 했다. 이것이 보수야합으로 자기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려는 류승민의 교활한 술책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는것이다.

문제는 류승민의 이러한 발언이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허덕이고있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말할것도 없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파의 신경을 건드려 보수세력내부를 벅적 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 지방자치제선거와 관련한 후보공천놀음은 홍준표의 독단과 전횡으로 하여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치렬한 싸움판으로 화하였다. 더우기 홍준표가 후보로 내세운 인물들은 모두 이러저러한 범죄사건들에 련루되여 선거에 나서기도 전에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였다.

바빠맞은 홍준표가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면서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자당의 후보로 나서줄것을 애걸하였지만 그들이 망해가는 《자유한국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하겠는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지방자치제선거의 핵심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에서는 물론 부산, 경상남도지역에서조차 내세울만 한 똑똑한 후보가 없어 쩔쩔매고있는것은 이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런 속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와 대변인이 박근혜역도의 편역을 들며 민심에 도전해나서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가뜩이나 인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고있던 이 당패거리들은 더욱 곤경에 처하고있다.

류승민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고있는 《자유한국당》의 처지를 리용하려 하고있다. 선거련대라는 미끼를 던져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끌어당기고 더우기는 홍준표의 전횡과 독단에 항거하여 련이어 이 당을 뛰쳐나오는 반홍준표세력을 받아들여 보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것이 류승민의 타산인것이다.

그러나 이미전부터 《바른미래당》을 저들에게 먹히울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으면서 눈아래로 보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류승민의 선거련대기도를 용납할리 만무한것이다.

류승민의 발언이 언론보도들을 통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것들은 《바른미래당》파의 《후보단일화는 있을수 없다.》느니, 《후보단일화를 하려면 아예 후보를 내지 말라.》느니 하고 로골적인 멸시감을 표시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를 향해서는 《무슨 경험이 있는가.》, 《시작만 했다가 끝까지 갈지 념려된다.》고 빈정거리면서 인신공격까지 해대고있다.

악이 오른 《바른미래당》것들이 《자유한국당》은 《련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정치구악집단》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두 보수야당사이의 싸움은 더욱 치렬해지고있다. 특히 안철수를 비롯한 이전 《국민의 당》출신의원들이 류승민이 자기들을 속였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며 이 당파의 선거련대는 죽는 길이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면서 《바른미래당》의 내부싸움도 격화되고있다.

보수패거리들의 이런 추악한 정쟁놀음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보수의 주도권쟁탈싸움이라고 평하면서 지방자치제선거가 다가올수록 싸움은 더욱 치렬해질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있는 정치시정배들의 개싸움질을 지켜보면서 남조선 각계는 민중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당파의 리익실현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는 반역패당을 단호히 심판할 의지를 벼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감출수 없는 모략사건의 진상

남조선에서 《천안》호침몰사건을 재조사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전, 현직《국회》의원들, 종교인, 대학교수 등 각계 인사들은 《천안》함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북남대화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경제협력과 교류재개의 가장 큰 장애물인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북남관계개선에로 나아갈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도 《천안》호사건의 진실규명이 가지는 력사적의미를 강조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여 북남관계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속에 《KBS》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들이 지난 3월 28일부터 새로 입수한 《천안》호침몰과 관련한 영상자료들을 가지고 《추적 60분》이라는 기록편집물을 제작방영하여 사회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천안〉호침몰사고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한다.》는 글이 게재되여 각계층의 호응을 받고있다. 인터네트에도 이를 지지하는 글들이 무수히 오르고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조선주민의 70%가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1번》어뢰를 비롯하여 리명박패당이 《북의 소행》을 운운하며 제시하였던 증거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단구성과 조사방법이 투명하지 못했고 수사가 짜맞추기로 진행되였다.》, 《리명박〈정부〉의 조작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천안》호침몰사건은 리명박역도가 집권당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방법으로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남조선사회를 보수화하여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날조해낸 특대형모략사건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2010년 3월 26일 밤 조선서해에서 《천안》호라는 함선이 불시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근 두달이 지나 리명박패당은 《천안》호가 우리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침몰되였다는 그 무슨 《합동조사결과보고》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는 《5.24조치》를 발동하였다. 《5.24조치》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일체 중단과 우리 선박의 제주해협통과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완전폐쇄,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이것은 반공화국모략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리명박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리명박패당이 들고나온 《북어뢰공격설》은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키기 위한 실로 허황한 날조설이다. 《합동조사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된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과 해외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선체밑바닥도 아닌 함선의 굴뚝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였다는 사실, 미국과 남조선의 수십척의 함선이 달라붙어 50여일이 지나도록 찾지 못한 어뢰추진체를 한갖 민간어선이 갑자기 나타나 고기그물로 건져냈다는 사실과 《천안》호를 두동강냈다는 어뢰의 추진축 스크류, 발동기 등이 휘어들거나 손상된것이 전혀 없는 사실, 어뢰추진체의 뒤부분에 《북의 글씨체》로 씌여져있다는 《1번》이라는 글자가 수십일간 바다속에 잠겨있은것 같지 않게 금방 쓴것처럼 또렷한 사실, 함선의 생존자도 아닌 백령도의 감시병이 약 100m높이의 물기둥을 사건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섬에서 그것도 캄캄한 밤에 목격하였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합동조사결과보고》를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문점들은 수두룩하다.

사실들은 《천안》호침몰사건이야말로 리명박역적패당이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투르게 조작한 모략극, 날조극이라는것을 투명이 립증해주고있다. 리명박패당은 《천안》호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둔갑시켜 민심을 오도하고 파멸의 함정에서 헤여날 심산밑에 《북어뢰공격설》을 꾸며냈다.

특대형반공화국모략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5.24조치》를 들고나와 북남관계를 완전히 도륙낸 리명박역도의 죄악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자면 리명박패당이 북남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날조해낸 《천안》호침몰사건이라는 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문제는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기록편집물방영을 계기로 남조선의 보수편거지들이 《형언할수 없는 가슴의 상처》니, 집권자와 당국의 《명확한 립장표시》니 하며 제편에서 고아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있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이 꾸며낸 《천안》호침몰사건의 내막을 깨깨 발가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최 진 향

남조선의 정의당 박근혜망녀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아시아경제》에 의하면 정의당 대변인이 6일 박근혜망녀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규탄하였다.

대변인은 박근혜가 현재 선고된 형벌로 죄를 다 씻기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는 사회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놓은 력사의 대죄인이라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역도가 선고공판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제년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에조차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치적희생자처럼 자기를 둔갑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사법부가 죽은 목숨인 박근혜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삼성이라는 이름과 련결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그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잔재들은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사회의 근본적개혁은 여전히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삼성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의 싸움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는 정의당이 사회의 근본적개혁을 위해 앞장에서 맞서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시도

1592년 4월 13일 일본침략자들은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기 위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력사에 임진왜란으로 기록된 임진전쟁(1592년-1598년)시기 일본침략자들은 피비린 살륙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끌어갔으며 국보급문화재들을 파괴, 략탈하였다.

임진전쟁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한 대살륙전이였다.

전쟁기간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부산성을 공격한 놈들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죽였다. 진주성에서는 전쟁기간 가장 큰 규모의 학살만행이 감행되였다. 성을 함락한 침략자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모조리 붙잡아 창고에 가두어넣고 불태워죽였다. 이로 하여 성안에는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단 한명도 없었고 시체만 널려있었다.

일본침략자들이 사람잡이에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은 교또에 있는 코무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당시 침략의 괴수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사람의 귀는 둘이라도 코는 하나이니 조선사람의 코를 베여 수급(베인 머리를 말함)을 대신하라고 떠벌이였다. 그리고 베여낸 코수자에 따라 《군공을 평가》해주었다. 이 살인명령에 따라 침략자들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것을 출세의 길로, 도락으로 여기면서 《군공》을 세워보려고 조선사람이라면 갓난아이까지 죽여가며 코를 잘라 바쳤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산 사람의 코까지 베여냈다. 짐승도 낯을 붉힐 잔악한짓이였다. 놈들의 범죄적만행으로 말미암아 전후에도 우리 나라에는 코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코무덤에는 그렇게 베여낸 코가 21만 4 752개나 묻혀있다고 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코무덤이라고 하면 제놈들의 포악성과 악랄성이 너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것을 귀무덤으로 속여온것이다. 허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일본침략자들이 저지른 만행의 흔적이 가리워질수는 없다.

전쟁기간 살인마들이 저지른 만행은 코베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조선사람들의 눈알까지 뽑아내고 머리를 잘라 매달아놓았다. 지어 조선군대의 끊임없는 공격과 봉쇄로 식량이 떨어지자 조선사람의 살점까지 뜯어먹는 식인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임진전쟁은 대량적인 살륙전, 랍치전인 동시에 문화재파괴 및 략탈전이였다.

전쟁기간 일본침략자들은 1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유괴, 랍치해갔다. 가장 많이 끌어간것은 수공업자들이였으며 그외에도 옷만드는 사람들, 의사, 인쇄기술자, 유학자들도 잡아갔다. 조선의 젊고 예쁜 녀자들을 바치라는 도요도미의 명령에 따라 침략자들은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끌어갔으며 성노예살이를 강요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전쟁기간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수많이 파괴하고 략탈해갔다.

경주의 불국사를 불태워버렸으며 수도인 한성을 점령한 후에는 종묘를 불사르고 선릉, 정릉 두 왕릉들도 파헤쳐 무덤안의 부장품들을 훔쳐갔다. 많은 서적들과 미술작품들, 조선종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들을 대대적으로 략탈해갔다.

하기에 일본인학자까지도 《히데요시의 침략전쟁은 조선문화를 깡그리 일본에 날라간 문화략탈전쟁이기도 하였다.》고 개탄하였다.

임진전쟁은 우리 인민의 결사적인 항전에 의하여 1598년 11월 일본의 대참패로 끝났지만 그 후과는 참혹하였다.

정녕 임진전쟁시기에 감행한 일본침략자들의 만행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국가범죄였다.

왜구의 호전성과 야수성, 략탈성을 젖줄기로 일본제국주의라는 흡혈귀가 생겨났다.

일제는 1905년 조약의 명칭조차 없고 조선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도 없는 불법무도한 문서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일본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였다고 우겨대는 《한일합병조약》도 일제가 조선황제의 서명을 위조하여 날조해낸 허위문서이다.

이렇듯 간악한 음모로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랍치련행하여 노예로동과 침략전쟁에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의 조선인민을 학살하였다. 또 군대의 전쟁의욕과 전투능력보존을 위하여서는 그들의 성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변태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녀성들을 탄약과 같은 소모품으로 보급하는 일본군성노예제도를 내오고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호색광들의 무리속에 《떡이감》으로 던졌다.

일본의 과거죄악사는 그 한페지한페지가 조선민족의 피로 얼룩져있다. 조선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질문화적 및 정신도덕적손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채로 바쳐도 도저히 배상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오늘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의 책임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천인공노할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헌법을 개악하여 전쟁국가를 조작하려 하고있다. 군사비를 대폭 증가하여 첨단살인장비들을 개발, 구입하고 특상총대를 발족시켜 《자위대》의 지휘체계를 보다 완비하는 등 재침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재침이 곧 일본의 완전한 패망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림 원

습근평주석 해군무력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12일 해상열병식에서 연설하면서 해군무력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강대한 인민해군을 건설하는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인민해군은 큰걸음으로 시대의 발전흐름을 따라잡아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해군장병들이 실전훈련을 틀어쥐고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언제나 당과 인민의 부름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권리와 리익을 견결히 수호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테 로 음 모 분 쇄

파키스탄의 서부국경지역에서 10일 테로분자들의 음모가 분쇄되였다.

이날 이 나라 군대는 자동차자폭공격 등 3건의 대규모테로공격을 계획하고있던 테로분자들을 적발소탕하였으며 많은 무기와 탄약, 폭발물들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반제자주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수리아

오늘은 수리아독립 72돐이 되는 날이다. 식민주의자들의 폭정밑에서 오래동안 신음하던 수리아인민은 1925년-1927년기간의 전국적인 폭동을 비롯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그 과정에 피도 많이 흘렸고 실패와 좌절도 겪었다.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수 없었다.

수리아의 독립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정의로운 애국투쟁의 결실이였다. 이날이 있어 수리아인민은 새 력사의 창조자로 될수 있었다.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수리아인민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은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수리아인민의 자주권, 발전권,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미국은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있는 수리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수리아에 제재와 압력을 가하였다.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반테로》를 구실로 수리아에 침략무력을 들이밀고 테로세력을 음으로양으로 비호두둔해주고있다. 목적은 그들을 내세워 반미적인 이 나라 정부를 기어이 전복하려는데 있다.

하지만 수리아정부군은 위기를 이겨내고 반공격에로 넘어가 테로분자들에게 빼앗겼던 도시와 지역들을 해방하였다.

반제자주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려는 수리아군대와 인민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로골적인 군사적간섭과 압살책동에 발광할수록 수리아인민의 조국수호정신은 더욱 견결해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지향하는 수리아인민의 투쟁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며 새 생활창조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ㄱ-81061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우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